

번역의 단위에 대한 고찰: 자료언어학의 어휘의미론적 관점

이 승 일
(한양대학교)

1. 문제의 성격

번역 작품 혹은 번역 문헌을 접할 때 옮긴이들은 서문에서 번역의 전략을 밝히고 있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시도했다거나 혹은 매끄럽고 자연스런 번역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표현들은 옮긴이들의 번역 전략(translation strategy)이 스며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번역 연구에서도 오랫동안 화두가 되어왔듯이, 충실성(fidelity)과 유창함(fluency)으로, 혹은 다르게 말하면, 정확성(accuracy)과 자연스러움(naturalness)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은 동시에 추구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번역 전략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즉 원전에 충실하면 목표어(target language: TL)인 우리말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우리말에 치중한 번역을 하다보면, 원문(source text: ST)의 훼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번역시 발생하는 원천언어(source language: SL)의 손실(loss)이나 증가(addition)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번역가의 번역행위를 단순히 SL에서 TL로 이어지는 ‘언어간 전환’이 아닌 ‘ST에서 TT(target text, 번역문)로의 텍스트간의 이동’이라는 의견¹⁾을 고려해 본다면, 위의 번역전략과 관련하여 적어도 한 가지는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번역시 SL을 강조할 경우 TT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TL을 강조할 경우 ST가 훼손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SL이든 TL이든 ‘텍스트’가 아닌 ‘언어’에 초점을 두는 번역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텍스트의 이동이라는 번역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거스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에 초점을 두는 번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의 단락에서 ‘언어’라는 말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즉 넓은 의미에서 사용했다. ‘언어’라는 말을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학)에서의 언어는, 비록 그것이 SL이든 TL이든, 다루자고 하는 어휘, 즉 ‘단어’(word)를 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번역행위를 SL에서 TL로의 이동으로 이해한다면, 번역은 한 언어(SL)의 ‘단어’를 다른 언어(TL)의 그것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소위 ‘단어 대 단어 번역’(word-for-word-translation). 그래서 위의 단락에서 말하는 ‘언어’에 초점을 두는 번역이란, SL 또는 TL의 어휘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번역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어휘적 요소, 더 정확하게, 단어에 초점을 두는 번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적으로, SL-TL의 정확한 ‘등가’(equivalence)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그 첫 번째이다. 예를 들면, 우리말의 ‘효’(孝)와 같은 말은 영어의 어휘 목록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비록 맥락이나 상황을 잘 전달하여 ‘효’를 번역할 수는 있어도²⁾, SL에 충실한 번역, 즉 직역(literal translation)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둘째, SL-TL에 있어서 등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단어 사이에 정확한 ‘일대일 대응 관계’(one-to-one correspondence)가 성립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

-
- 1) 사실 ‘번역행위’를 무엇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록 유수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누구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의견’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즉 번역행위를 ST-TT사이의 텍스트간 전환이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 2) 이 경우 흔히 말하는 의역(sense translation)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있다. 가령, 영어의 인사말인 ‘Hi’, ‘Hello’의 경우, 그것은 우리말의 ‘안녕’, ‘안녕하세요’, 같은 말로 번역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때, 두 단어 사이에 정확한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우리말 ‘안녕’의 경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없고 없다는 ‘무탈’을 뜻하지만, 영어의 ‘hi’는 무탈을 의미하지 않는다³⁾. 따라서 서로 간 안부나 형편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두 단어는 등가가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대일 대응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셋째, SL-TL에 있어서 설령 일대일 대응 관계를 성립하는 등가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의 쓰임새가 실제 문맥에서 반드시 같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것은 단어의 ‘연어현상’(collocation)에서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 가령 우리말의 ‘노랑 머리’를 영어로 옮기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우리말의 ‘노랑’에 해당하는 ‘yellow’와 ‘머리’에 해당하는 ‘hair’를 일대일 대응관계에 놓여있는 등가로 인식하고 그것을 합쳐서 ‘yellow hair’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의 조합을 ‘yellow hair’로 옮길 경우,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된다. 다시 말해, ‘노랑 머리’에 해당하는 영어의 단어 조합은 ‘yellow hair’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통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노랑 머리’의 경우 ‘blonde hair’라는 어구를 쓴다. 오델과 맥카시(O'Dell and McCarthy 2008)에 의하면 비록 그들이 ‘yellow hair’라는 표현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매우 어색하고 거북하며 번역투(translationese)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⁴⁾. 따라서 SL-TL의 각각의 단어들이 등가 및 일대일 대

3) 영어의 ‘hi’는 상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다(to attract attention)라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www.etymonline.com>)

4) 관동대의 강혁진은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을 필자에게 지적해 주었다. “노랑머리의 경우 우리말에 있어서 ‘비행청소년’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단순히 금발을 의미하는 ‘blonde hair’보다는 ‘yellow hair’가 더 적절한 번역일 수도 있다” (2010 봄 한국번역학회 학술대회에서 토론자 신분으로서의 지적). 그의 지적은 매우 정당하며 타당성을 갖는다. 우리말의 ‘노랑머리’는 그의 지적대로 단순히 색깔을 칭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노랑머리는 ‘yellow hair’가 아닌 ‘punk hair’라야만 하며, 가장 우리말의 함의를 잘 전달해줄 수 있는 적절한 영어의 조합이 선택되어야 한다. 좌우지간 논의의 핵심은 ‘yellow hair’라는 영어의 조합은 부적절한 조합이라는 것이다.

응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의 조합은 실제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허용되거나 의미가 통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서 보이듯이, SL-TL의 어휘적 요소, 즉 단어에 초점을 두는 번역은 온전한 형태의 번역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언어현상에서 펼쳐지는 단어들 간의 결합은 우리에게 번역의 단위(unit of translation)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랑머리라는 각각의 두 단어는 영어에서도 yellow hair라는 정확한 등가가 있었지만, 그 조합은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으며, 결론적으로는 부적절한 번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ST를 TT로 옮길 적에 그 단위만한 단어 위주의 낱말(single word)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노랑 머리’를 ‘노랑’-‘yellow’ 그리고 ‘머리’-‘hair’로 등치시켜 조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영어로는 ‘yellow hair’가 아닌 ‘blonde hair’가 제대로 된 번역임을 상기할 것—따라서 번역행위는 단어를 단어로 옮기는 작업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만일 위와 같은 분석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가설적인 의견에 도달할 수 있다. 적어도 번역의 단위는 형태론(morphology)에서 제공되는 뜻을 가진 최소단위인 ‘자립형태소’(free morpheme)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낱말’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어현상’과 관련한 나의 이러한 입장은 베이커(Baker)로부터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다(1992: 57, 53, 55, 글쓴이 우리말 옮김⁵⁾).

정확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다. 하지만 소통

5) 원문은 다음과 같다(글쓴이 이탤릭 삽입). “Accuracy is no doubt an important aim in translation, but it is also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the use of *common target language patterns* which are familiar to the target read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keeping the communication channels open.[...] Taking account of *collocational meaning* rather than substituting individual words with their dictionary equivalents is therefore crucial at the first stage of translation, that is when the translator is interpreting the source text.[...] At any rate, translators are well advised to avoid carrying over source-language collocational patterns which are *untypical* of the target language, unless there is a very good reason for doing so.”

을 열어둠에 있어서, 목표어 독자들에게 친숙한 목표어 단어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번역가가 원문을 번역할 때, 제일단계 작업으로서, 사전을 가지고 개개의 단어들을 치환하는 것보다는 언어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하튼, 번역가는 원천어의 단어배열이 목표어에서는 언어적으로 어색하게 옮겨질 수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적어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말이다.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번역이란 ST-TT 사이의 단어들을 순수하게 교환하는 것이 아닌, 즉 원문의 단어들을 목표어의 단어들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닌,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말로 자연스럽게 읽히게끔 단어들을 배열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번역의 단위는 더 이상 낱말이 되어선 안 된다. 앞서 보았듯, 낱말이 단위가 될 경우 그 조합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의 단위는 낱말 그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번역의 단위는 지금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통적으로 번역의 단위는 ‘낱말’이 차지하고 있다⁶⁾. 하지만 바로 위에서 보았듯, 번역의 단위로서 ‘낱말’이 더 이상 단위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번역의 단위로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텍스트’라는 개념은 아마도 그것의 대안이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이 글 첫머리에서도 밝혔듯이, 번역이 ST-TT 사이의 텍스트간 이동이라면, ST-TT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단위, 즉 텍스트의 구성체(textual segment)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 구성체가 무엇인지 그것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번역의 단위는 새롭게 조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말뭉치 연구인 자료언어학(corpus linguistics)의 어휘의미론(lexical semantics) 분야에서는 이 텍스트 구성체에 대해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

6) [The unit of translation]refers to the entity which is taken to be processed by the translator at a given time during the process of translation. NO AGREEMENT exists between scholars as to the nature and scope of such entities. [...] Traditionally, scholars of translation have tended to equate the unit of translation with INDIVIDUAL WORDS (파룸보(Palumbo) 2009: 140-41, 글쓴이 강조삽입).

승일 2008). 물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도 함께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료언어학의 이론을 근간으로, 본고에서는 번역의 단위를 새롭게 조망하려 한다. 이어지는 곳에서는 번역의 단위를 자료언어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 나아가 ST-TT사이 텍스트간 전환, 즉 텍스트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볼 생각이다.

2. ‘말덩이’ 개념

2.1. ST-TT 전환 시 ‘텍스트’의 의미

윗장에서 필자는 번역행위를 SL-TL 사이의 단어간 이동이 아닌 ST-TT사이의 텍스트간 전환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그리고 번역이 수행될 때, 그 단위는 낱말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 즉 텍스트를 형성하는 어떤 구성체가 최소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본 장에서는 자료언어학의 어휘미론에서 제공되는 ‘말덩이’(chunk) 개념을 활용하여, 위에서 제기한 물음에 답변을 시도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 글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어진 SL-TL사이 이동과 ST-TT간 전환의 차이점에서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SL-TL간의 이동은 단어에 초점을 둔 번역이었다면, ST-TT간의 전환은 말 그대로 원문을 번역문으로 옮기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것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하나의 텍스트를 또 다른 텍스트로 옮기는 것은 단어 대 단어를 치환하는 것이 아닌 그 단어를 품고 있는 텍스트에서 또 다른 텍스트로 모조리 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 때 텍스트는 한 단어, 즉 낱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전달하려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의미하고 있다—이를테면, 영어에서 감사를 표시하는 표현인 ‘thank you’는 ‘thank’ 그리고 ‘you’ 두 단어의 조합이 아닌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그래서 원문의 텍스트는, 목표어에서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번역문의 텍스트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가령, 앞의 예인 영어의 감사표시를 우리말로 전달하려면, 가장 자연스러운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타 화용적 정보가 주어진다면, ‘고마워’ 혹은 ‘감사감사’ 등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는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텍스트를 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단어 대 단어의 치환이었다면, ‘감사합니다’가 아닌 ‘당신에게 (you) 감사드립니다(thank)’로 번역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은 목적어를 끌어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다 – 만일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한다면 번역투의 기분이 들 것이다 – 따라서 ‘감사합니다’의 경우, 낱말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것은 인사말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으로서 영어의 ‘thank you’에 대응하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보다시피, ST-TT간의 이동은 단어간의 이동이 아닌 텍스트간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 때 텍스트는 원문이든 번역문이든 각자의 모국어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널리 통용되는 단어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2.2. 텍스트의 두 가지 의미

위의 단락에서 우리는 ST-TT간 텍스트의 전환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때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텍스트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다.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언어를 구성하는 분절체(segment)의 모임이지만, 이것은 분절체의 시작인 낱말(single word)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구(phrase), 문장(sentence), 단락(paragraph), 그리고 한편의 글(a piece of writing)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ST-TT간의 전환을 말할 때, 텍스트의 옮김은, 단어에서 단어인지, 어구에서 어구인지, 문장에서 문장인지, 그리고 단락에서 단락 또는 글에서 글인지, 도대체 텍스트의 전환이란 무엇의 이동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텍스트와 관련해서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and Hasan 1985)은, 언어의 분석 단위로서 텍스트에 최고의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그들에 의하면 (같은 책), 텍스트는 ‘낱말’에서 부터 한편의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문맥’(context)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7) 여기서 상황이란 ‘발화상황’(situation of context)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범위가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할리데이(Halliday)의 텍스트 개념에 따르면, ST-TT 전환은 낱말에서부터 한편의 글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텍스트간 이동이다. 반면, 싱클레어(Sinclair 2004)는 텍스트에 대한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내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단어들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배열은 단순한 나열이 아닌, 꾸준함과 일정함을 기반으로 서로서로 이웃하는 낱말들과 함께 나타나는 일종의 언어현상(collocation)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언어활동이 개시되면, 낱말은 항상 이웃하는 말들과 함께 출현하면서, 고정된 형태의 성격, 이른바 어떤 ‘유형’(pattern)을 띠게 된다고 생각했었다. 예를 들어, 영어의 ‘happy’라는 낱말은 영어의 모든 단어들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 ‘be’, ‘with’, ‘very’, ‘quite’, ‘are’, ‘to’, ‘not’, ‘re’, ‘was’, ‘you’, ‘we’, ‘am’, ‘she’, ‘were’ 등 소수의 제한된 단어들과 결합하여 사용되면서 일정한 쓰임의 틀을 보여주고 있고, 소위 ‘정해진 표현들’(fixed expressions)을 이루게 된다. 단어 ‘happy’가 이웃하는 단어들과 이루는 BE-VERB+happy+PREP와 같은 유형은 이것의 한 예이다⁸⁾. 따라서 싱클레어(Sinclair)에 있어서 텍스트란 하나의 낱말이 이웃하는 단어들과 함께 펼쳐질 수 있는 어휘적 환경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자료언어학의 어휘의미론자들에 의해, ‘자맥’(co-text)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위의 단락에서 우리는 텍스트의 개념을 할리데이(Halliday)와 싱클레어(Sinclair)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보다시피, 텍스트의 정의 및 범주는 넓

8) 이 자료는 Bank of English의 말뭉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록참조, ‘happy’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이승일(2008) 5장 참조).

9)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字脈’이란 용어는 아직 국내에 뿌리내림을 한 상태는 아니다. 혹자는 co-text를 ‘문맥’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자료언어학에서는 두 용어의 사용이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co-text’란 용어의 우리말 번역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co-text의 번역을 ‘자맥’으로 옮기고 있다—文字의 ‘文’에서 文脈이 형성되었듯이, ‘字’를 따와 字脈을 만들어 보았다—자료언어학에서 자맥과 문맥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context는 언어외적 요소인 발화상황이나 맥락을 나타내는 external linguistic factor인 반면, co-text는 순전히 언어내적요소인 어휘적 맥락, 즉 이웃하는 말들과 함께 나타나는 언어현상을 가리키는 internal linguistic factor를 칭하고 있다 (이승일 2008). 따라서 순전히 어휘적 요소를 나타내는 맥락을 칭할 시에는 ‘字’를 넣어 ‘자맥’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게 펼쳐져 있었다. 그래서 어떤 정의를 취하느냐에 따라 ST-TT 텍스트 전환 시, 옮겨지는 텍스트의 길이 및 크기가 달라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번역의 단위’ 역시 어떠한 정의를 쫓아가느냐에 따라 분절체(textual segment)를 어디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번역의 단위를 규명하기 위해선 어떤 의미의 텍스트 개념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2.3. 자료언어학에서의 텍스트의 의미

텍스트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자. 첫째, 적어도 번역가의 번역행위가 존재하는 한, ST-TT사이 텍스트간 전환은 ‘의미’(meaning)라는 요소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즉 의미의 전달을 무시한 번역은 무의미한 번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더 정확히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분절체는 ‘뜻을 가진 단위’(meaningful unit)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분절체의 크기 역시 텍스트의 ‘기본’(base)을 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소단위’(minimal unit)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ST-TT간 텍스트 전환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분절체는, 다시말해 텍스트의 단위(unit of texts)는 ‘최소의미단위’(minimal meaningful unit)로서 정의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비추어 본다면, 할리데이(Halliday 앞의 책)가 제시한 텍스트의 개념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에 따르면 텍스트란 ‘의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발화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낱말에서부터 한 편의 글에 이르기까지 탄력적이면서도 유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문맥적 의미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포괄하는 것인지, 과연 낱말이 갖고 있는 자립형태소 개념의 최소의미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편의 글이 품기는 전체적 맥락에서의 총체적인 의미를 고려하는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또한 번역가마다 문맥적 의미를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럴 경우 텍스트의 구성요소, 즉 분절체의 단위는, 어디에서 나뉘질지, 확인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할리데이(Halliday)가 제시하는 텍스트의 기준은 애매성을 가지며, 어떤 ‘단위’로서,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할리데이(Halliday)가 제시하는 텍스트의 개념은 따라가

지 않을 것이다¹⁰⁾.

위에서 언급한 할리데이(Halliday)의 텍스트와는 달리, 싱클레어(Sinclair)가 제시하는 텍스트의 개념은 우리의 현안과 관련지어 충분히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앞서 자료언어학자들이 제시한 자맥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자맥은 텍스트 속에서 한 단어(single word)가 펼쳐지는 어휘적 환경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최소 두 단어에서부터 통상 네 단어까지 그리고 최대 일곱 단어에 이르기까지, 단어들이 무리지어 어군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thank you’ 혹은 ‘thank you very much’ 와 같은 것은 각각 두 개 그리고 네 개의 단어가 뭉쳐 고정된 유형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¹¹⁾. 이러한 자료언어학의 ‘자맥’ 개념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 가지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적어도 텍스트의 범위는 문맥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일정 수의 단어로 (통상 네 단어) 이루어진 어군으로서, 구체적인 실체를 지닐 수 있는 하나의 구성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텍스트의 개념은, 텍스트를 하나의 단위로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자맥 속에서 펼쳐지는 단어들의 조합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어의 ‘happy’와 같은 단어는 불특정의 단어와 임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제약에 의해 선별된 단어들하고만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정해진 표현들(fixed expressions)이었다. 따라서 그 표현들의 ‘의미’ 역시 정해져 있다¹²⁾ (idiomatic)고 봐야한다. 가령 ‘happy’는 사전 항목에 등재되어 있는 낱말로서는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펼쳐지는 자맥 속에서는 이

-
- 10) 필자는 지금 할리데이(Halliday)와 같은 위대한 학자에게 반기를 들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할리데이가 주장하는 텍스트의 개념은 텍스트 분석을 다루는 담화언어학에서는 매우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고와 관련해서, 즉 번역의 단위와 관련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자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할리데이의 텍스트 개념은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11) 말뭉치 자료인 Bank of English에 의하면, 이 표현들은 정해진 표현(fixed expression)으로서, 하나의 단위처럼 사용되어 지는 것이다.
- 12) 스티브(Stubbs 2001)은 ‘정해진 표현들’(fixed expressions)을 엄격한 의미에서 ‘관용어’ 혹은 ‘숙어’(idiom)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사용과 의미는 대단히 ‘숙어적’(idiomatic)이라고 말하고 있다.

웃하는 단어들과 함께 의미가 정해져 버린다. 즉 ‘I am happy with¹³⁾ you’ 라는 표현에서의 ‘happy’의 의미는 여러 개가 아닌 하나로 굳어져 버린다—여기서는 ‘만족’의 뜻—이런 맥락에서, 자맥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해주고, ‘의미의 단위’(unit of meaning)를 제공해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셈이 된다.

위에서 제시된 자료언어학의 ‘자맥’의 개념은 본고와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일깨워주고 있다. 첫째, 자맥은 일정한 유형의 고정된 형태를 가진 구성물로서, 텍스트의 ‘최소 단위’(minimal unit)를 관찰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둘째, 자맥은 어떤 단어가 펼쳐질 수 있는 어휘적 환경을 제한함으로써, 그 단어가 텍스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결정해주는, 즉 텍스트가 ‘의미의 단위’(meaningful unit)로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앞서 본 단락이 시작하는 곳에, 텍스트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minimal meaningful unit)의 어떠한 구성체라야만 한다고 했었다. 자료언어학이 제시하고 있는 자맥의 핵심개념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으로서 ‘자맥’의 정의를 따라갈 것이다.

2.4. 번역의 단위—말덩이

앞선 단락에서 우리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구성물, 즉 분절체에 대해서 ‘최소의미단위’로서 그 성격을 규정했고, 그것의 실체는 자료언어학에 제공하는 ‘자맥’ 개념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본고의 목적인 ‘번역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료언어학의 어휘의미론 자들은—대표적으로 스티브(Stubbs 2001)이 있다—‘어휘’(lexis)를 뜻을 가진 최소 단위라고 정의하는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형태론의 형태소와도 같은 개념이며, 위에서 살펴봤었던 텍스트 분절체의 성격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 의미의 형태소의 개념과 판이하게 다른 것은, 어휘를 구성하는 분절체가 본질적으로, 한 단어가 아닌, 즉 낱말(single word)이

13) 앞서 밝혔듯이, ‘happy’는 BE-VERB+happy+PREP의 틀을 따르는 굳어진 유형을 지닐 수 있다 (말뭉치 정보는 부록의 <표2> 참조, 보다 자세한 분석은 이승일 2008 참조)

아닌 여러 개의 단어가 조합해서 형성된 ‘덩어리’ 혹은 ‘말덩이¹⁴⁾’(chunk)라는데 있다. 이러한 ‘말덩이’는 주어진 자맥 속에서 고정된 형태를 보여주며 이른바 정해진 표현(fixed expression)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말덩이’ 자체가 하나의 기호(sign)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어에서 안부를 묻는 표현법, ‘how are you?’ ‘how’s it g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things with you?’와 같은 것들은 대단히 틀에 박힌 형태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덩어리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움직이는 것들이다.

만약 이와 같은 ‘말덩이’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앞의 단락에서 논의했던 텍스트 및 그 분절체에 대해서 잠시 상기해 보도록 하자. ST-TT 전환 시, 텍스트의 요건은 어휘적 환경을 제공해주는 ‘자맥’으로서 최소의미단위인 분절체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반이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주어지면 그 단어가 펼쳐지는 자맥이 형성되고, 또한 주어진 자맥을 통해 관찰중인 단어가 (이웃하는 말들과) 형성하는 ‘말덩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확인되는 말덩이는 스스로가 하나의 ‘기호’로서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주어진 자맥 속에서 말덩이가 확인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텍스트 분절체가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주어진 텍스트의 최소의미단위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ST-TT 사이의 텍스트간 이동은, ST-TT사이의 말덩이들 사이의 이동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ST-TT사이 텍스트간 전환을 말덩이들간의 이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번역의 단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글의 머리 부분에서도 밝혔듯이, 번역행위가 ST-TT사이의 텍스트간 이동이라면, 각각 SL, TL에서 텍스트가 이동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텍스트를 무엇으로 규정지를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작업이 된다¹⁵⁾. 즉 번역이 일어날 때, 무엇이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 사이 이동을 말덩이간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의 이동경로는

14) 이 용어 역시 앞의 ‘자맥’과 더불어 우리나라 학회에 완전히 뿌리내림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마냥 번역을 기다릴 수는 없어, 본고에서는 ‘말덩이’로 옮기는 바이다.

15) 사실 이러한 이유로 번역의 단위가 지금까지 ‘낱말’이 되어왔었다. 적어도 낱말은 겉보기 상으로 그 형태와 경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 분명해 질 수 있다. 가령, 앞에서 보았었던, 영어의 감사표시인 ‘thank you’의 경우, 그것이 하나의 ‘말덩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즉 주어진 자맥 속에서 정해진 표현(fixed expression)으로 확인된다면, 그 전환은 우리말의 ‘고맙습니다’를 찾아내어 이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 때 우리말의 ‘고맙습니다’ 역시 하나의 ‘말덩이’로 쓰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고 있다면, 위의 번역은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로 바꾸어서 해야 하지만, 감사를 표시하는 우리말의 정해진 표현은 목적어를 거느리지 않고 동사로 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은 낱말이라기보다는 ‘말덩이’로 보아야 한다. 보다시피, ST-TT간 텍스트 전환은 SL의 말덩이를 TL의 말덩이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번역이란 각각의 언어에 해당하는 ‘말덩이’들을 찾아서 서로서로 이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¹⁶⁾.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번역의 단위는 ‘말덩이’들이다.

2.5. 말덩이들간의 소통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거쳐서 ST-TT사이의 텍스트간 이동, 즉 번역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번역이 단순히 SL-TL사이의 단어간의 치환이 아니라면, SL-TL 사이의 이동은 단어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했다. 우리는 이동대상으로서 텍스트에 주목을 했고, 특히 자료언어학에서 제시되어진 자맥에 근거하여 그것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다. 자료언어학에 따르면, 단어는 자맥 속에서 혼자 쓰이지 않고 항상 이웃하는 말들과 조합하여 어구를 이루며, 일정한 틀을 따르는 정해진 표현이었는데, 이것은 종종 ‘말덩이’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했다. 만일 ‘말덩이’를 텍스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텍스트의 기본 의미단위로서 번역의 단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ST-TT간 텍스트간 이

16) 다음과 같은 반론의 제기는 매우 타당하다. 목표어에서 원천어의 말덩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ST-TT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말덩이는 SL-TL의 등가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collocation을 찾아서 목표어를 읽는 사람들에게 억지스럽지 않은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령 목표어에 원천어의 말덩이가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경우, 같은 의미를 담은 가장 자연스런 말덩이를 생산하여 목표어의 독자들에게 제시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동은 ST의 말뭉치를 TT의 말뭉치로 전환하는 것이기도 하다. 번역가는 말뭉치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ST-TT사이 텍스트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SL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자연스런 말뭉치를 찾아내어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ST-TT간의 소통은 ST-TT사이의 말뭉치간의 ‘소통’이기도 하다.

3. 사례

아래의 사례는 앞 장에서 지적된 ‘단어 대 단어 번역’(word-for-word translation)의 폐해와 오류를 확인하며, 또한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말뭉치 대 말뭉치 번역’(chunk-to-chunk translation)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들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번역을 수행해 보는 식으로 진행된 이 비공식적인 실험에서는 20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를 했다¹⁷⁾. 참여자의 영어수준은 중간에서부터 중상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제시된 자료 중 <자료2>는 참여자들의 답변을 추려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우선 제시 글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자료1> 편지글

dear all,
 hi, hope your day is going great. i've just attached the pdf- files that will be used in the next class. u r supposed to read all of them, plus, u r gonna bring your textbook as required.

cheers,
 Tony

[출처: 글쓴이 자료]

위 ST는 매우 일상적이고도 평범함 전자 서신으로서, 가공되지 않는 정보(authentic material)로서도 손색이 없다¹⁸⁾. 이 글은 문법적으로 매우 파격적이

17) 조사에 응해준 동국대, 부산대, 한양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상 가나다 순).

며, 문체론적으로 비격식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매우 평이한 수준으로, 참여자들의 수준이 중상위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번역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조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우선적으로 참여자들은 원천어의 ‘말덩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다수가 직역, 즉 문자그대로의 번역에 충실—또한 의역을 한 경우도 목표어의 말덩이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번역, 즉 오역을 한 경우가 매우 빈번했었다. 이것은 분석 컨테 SL의 말덩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리고 TL에 대응하는 말덩이를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참여자들의 문제점들이 빈번히 노출된 번역은 우선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제시 될 수 있다¹⁹⁾. 아래의 밑줄 친 부분은 ST-TT 사이의 말덩이들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2> 참여자의 우리말 번역 재구성

1)친애하는 여러분,	1) <u>dear all,</u>
2)안녕하십니까? 3)귀하의 하루가 무궁하길 빌겠습니다. 나는 4) 다음수업 시간에 사용할 PDF 파일을 첨부했으며, 5)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읽어 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탁했듯이, 6) (당신의) 책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hi, 3)hope your day is going great. i've 4)just attached the pdf- files that will be used in the next class. 5) <u>u r supposed to</u> read all of them, plus, 6) <u>u r gonna</u> bring your textbook as required.
7)힘내십시오,	7)cheers,
8) 토니교수	8)TONY

[출처: 글쓴이 자료]

언뜻 보서는 좌측상단에 위치한 TT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 18) 가공되지 않는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떤 실험에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데이터가 아닌 일상에서 찾아 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 19) 참여자 200명의 답변 중, 공통적인 것들을 추려내어 재구성된 형식으로 제시된 자료이며, 위에 실린 번역의 실제 응답 비율은, 1) 22%, 2) 34%, 3)14%, 4) 30%, 5)28%, 6)32%, 7) 46%, 8) 29%로 나타났다.

있다. 하지만 문자 대 문자가 아닌, 즉 ‘단어 대 단어’가 아닌 자연스럽게 널리 용인되는 ‘말덩이 대 말덩이 번역’이라는 기준에서 살펴본다면 위의 번역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다시피, 1), 2), 3)의 경우 문자 그대로의 직역에 충실한 나머지, 편지가 내뿜는 문체적(stylistic)인 특성과 의미적인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학생들에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어지는 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목표어에서 적절한 말덩이 선택은 1)의 경우, ‘모두에게’, 또는 ‘안녕 애들아’, 혹은 존어를 써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²⁰⁾. 또한 2)의 경우, ‘안녕’이라는 평어로 쓰던지 혹은 ‘안녕하세요’가 좀 더 적절한 말덩이일 수 있는데, 참여자들의 번역인 ‘안녕하십니까?’는 지나치게 무게를 더해줌으로 부적절해 보인다. 3)의 경우 직역에 충실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영어의 말덩이, ‘hope your day is going great’를 읽지 못한데서 오는 오역이라 할 수 있는데, 만일 적절하게 번역이 된다면, ‘좋은 하루 보내고 있지요?’ 정도가 우리말의 자연스런 말덩이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어서 4)의 경우, 문법적 오류로, ‘방금’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just’를 지나쳤으며—이것이 있고 없고는 의미차가 커지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번역—5)의 경우 ‘you are supposed to do’라는 말덩이를 직역에 의존한 경우이며—‘읽고와야 한다’로 번역이 되던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6)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간접적인 명령형에 해당하는 문장의 (you are going to)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명사를 ‘you’를 넣어서 번역을 함으로써, 지나치게 번역체의 느낌을 주고 있다. 7)은 명백한 오역으로서, 의미론적으로나, 문체론적으로도 실패한 사례다. ‘cheers’의 경우 인사말을 하는 것인데, 학생들은, ‘cheer up’에서 연상되는 잘못된 유추로, 오역을 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8)의 경우, 우리말로 할 경우 ‘TONY 드림’이 더 적절한 말덩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수가 보냈으니 직위를 덧붙여서 번역해야 한다는 일종의 문화 특성적(cultural-specific)인 실수²¹⁾를 보여주고 있다.

20) 개인적으로 볼 때, 세 번째 말덩이가 목표어인 우리말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널리 용인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1) 사실 교수가 보낸다 하더라도 자신이 보내면서, 직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생들은 교수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위한, 일종의 존대어법의 차원에서 번

위에서 보이듯, ST-TT간 텍스트 전환 시, 단어에 치중한 번역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또한 번역체가 느껴지는 한계가 있다. 만일 이것이 ST-TT간 말뭉치를 전달하는 시도였으면, 한결 자연스러우며,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읽어 내려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²²⁾.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번역의 단위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번역의 단위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뚜렷한 합의가 없는 실정이지만, 전통적으로는 한 단어 위주의 낱말이 그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낱말 위주의 번역은 등가와 대응 그리고 언어현상과 관련하여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특히 언어현상과 관련해서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노출했다. 목표어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단어의 조합 찾기에 실패한 경우가 그것인데, 이것은 번역의 단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 단어 위주의 번역이 한계를 보인다면, 필연적으로 번역의 단위는 한 단어 이상인 그 무엇이 되어야 함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특히 번역의 정의를 단순히 ST-TT간의 단어 치환이 아닌 텍스트간 이동으로 이해할 시, ST에서 TT로 이동하는 ‘텍스트’를 번역단위의 새로운 대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고 동시에 정당했다. 다만 텍스트의 단위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언어학의 텍스트 개념에 주목을 하였다.

자료언어학에 의하면, 텍스트란 ‘자맥’을 의미하며, 그것은 단어의 의미와 형태를 결정짓는 배경으로서, 말뭉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말

역을 할 때도 교수라는 직위를 넣어서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실수라 할 수 있겠다.

22) 필자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우리말 말뭉치에 근거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지요? 다음 수업시간에 사용 될 pdf 파일을 방금 첨부했어요. 모두 읽어 오셔야 하구요, 그리고 말씀했듯이 교과서도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만, 토니 드림.”

덩이가 확인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기반으로 텍스트의 최소의미구성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번역의 단위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조망된 번역의 단위는 ST-TT간 텍스트의 이동시 생기는 말덩이들이며, 바람직한 번역이란 원천어와 목표어에서 존재하는 ‘말덩이’들을 서로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참고문헌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Halliday, Michael and Ruqaiya Hasan (1985) *Language, Context and Text: A social semiotic perspective*, London: OUP.
- Lee, Sung-II (2008) *British Contextualism and A Holistic Approach to Words: An Argument for the Essence of Collocation*,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Nottingham.
- O'Dell, Felicity and Michael McCarthy (2008) *Collocations in Use: Advanced*, Cambridge: CUP.
- Palumbo, Giuseppe (2009) *Key Terms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Continuum.
- Sinclair, John (2004) *Trust the Text*, London: Routledge.
- Stubbs, Michael (2001) *Words and Phrases: Corpus Studies for Lexical Semantics*, Oxford: Blackwell.
- Bank of English <http://collins.co.uk/Corpus/CorpusSearch.aspx>

부록1

<표1> HAPPY의 어휘적 환경

Collocate	Corpus Freq	Joint Freq	Significance
mdnm	10492	711	26.225502
i	512080	1505	24.064739
be	234656	996	23.262429
with	290716	1031	22.005948
very	60986	555	20.669723
mdl	5960	426	20.317540
m	52434	495	19.618742
mdul	4437	312	17.383215
quite	19835	321	16.681092
are	198957	620	15.983503
to	1104731	1935	15.964181
not	169116	544	15.232730

위 도표는 영단어 ‘happy’와 가장 빈번하게 이웃하는 단어들을 빈도수 별로 나열한 말뭉치 정보이다. [출처: Bank of English]

<표2> BE-VERB+happy+PREP 유형

Joan Taylor is happy with the £ 50 a w
 ea and they are happy with that, they s
 Phil Collins is happy in love, and Virg
 school and are happy with it. [p] Anc
 abshell. We are happy with the overall
 I appear to be happy on my own. Everyo
 cs, and you are happy with the results,
 none, I can be happy with a piece of k
 ected me to be happy. In despair I tel
 3) Choose being happy over being right.
 sident can't be happy about the 500,000
 : I wouldn't be happy about doing it I
 lf would not be happy with the way the
 [F02] Mm. I was happy with what I was c
 at would you be happy with? [F01] No I
 appraisal I am happy in my classroom v
 ah [M01] I'd be happy with the balance.

‘happy’가 형성하는 말뭉치들 [출처: Bank of English]

[Abstract]

**A Possible Unit of Translation:
From the Lexico-Semantic Perspective of Corpus Linguistics**

Lee, Sung-Il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sheds a light on the unit of translation which is referred to as a textual segment to be translated from the source text to the target text. There seems to be no unanimous agreement amongst scholars as to the scope and nature of such entities. But, in a traditional sense, the unit has been taken to mean individual words. However, this paper casts a serious doubt on the notion of units of translation on the grounds of individual words. Instead, the current paper illuminates the idea of chunks suggested by collocationists working in corpus linguistics. For this purpose, the paper examines two different notions of text in the first instance, namely Halliday's text and Sinclair's text, and stipulates what the text should be like. In so doing the present paper makes an attempt to argue that the co-text should be regarded as surroundings where chunks can be identified, and to substantiate that chunks can be a possible unit of translation in parallel to textual segments.

▶ Key Words: unit of translation, text, chunks, co-text, corpus

이승일
한양대학교 영문과 강사
orionist@hanmail.net

관심 분야: 코퍼스 언어학, 번역학, 영어 교육

논문투고일: 2010년 5월 03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09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0일